

## “치밀한 문화마케팅으로 문화수출의 촉매 기대”

이기웅 주빈국 집행위원장  
한국관 운영·프로그램 진행 만전 기해야  
‘책’을 화두 삼은 전지구적 교감의 장 되길



이기웅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집행위원장은 이번 도서전을 ‘21세기판 문화 실크로드’로 표현했다. ‘주빈국 한국’에 던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 출판문화의 본격적인 세계무대 ‘데뷔’ 가능성을 다시금 견뎌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우선 한국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권 교류가 예상됩니다. 국내외 출판물이 이처럼 한꺼번에 대량의 교류를 감행할 기회는 앞으로도 좀체 없을 것입니다.

(재)출판도시문화재단·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으로서 ‘과주출판도시’ 건설에 앞장서온 그는 “다소 무리다싶을 정도로 우리 책과 우리 문화 알리기에 공격적으로 나서봄 직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뒤늦게나마 도서전 준비작업에 참여한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의미를 여느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 “세계 이성(理性)의 교차로 1번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단순한 ‘도서전’ 이상입니다. 공통의 교감 수단으로 ‘책’을 내세운 지구촌 최대의 문화 축제죠. 좀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년 한 차례씩 펼쳐지는 세계 이성의 ‘교차로 1번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출판은 물론, 우리 건축과 사진, 미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적 역량이 한껏 펼쳐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문화 마케팅’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식 밀어내기 수출’까지 포함해 역동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이 정작 우리의 주빈국 행사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하긴 그가 평소 과주출판단지를 통해 ‘한국 출판문화 알리기’에 적극 나서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과주출판단지를 보기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 ‘북시티’를 찾아온 바 있다”는 이 위원장은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 한국관에 과주출판단지의 축소 모형을 전시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 한국관에 ‘과주출판단지’ 모형 전시…

그러나 일방적 ‘알리기’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계인의 문화적 감각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정작 그가 말하는 문화수출과 교류의 본래 뜻이다. “예컨대 과주 ‘북시티’에 들르는 외국인, 특히 도서전을 앞두고 많이 찾아든 독일인들이 남기고 간 생각과 말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디지털 한국”을 알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기본적인 아날로그적 인성 또한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첨단 물질문명국에서 온 사람들이란 선입견에서 다소 비껴난 셈이랄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랄까, ‘마인드’에 더 관심을 갖는 편이죠.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이 위원장은 “욕심을 내자면 무형의 지적 자산과 속내까지 아우른 ‘화학적 소통’까지 기대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는 그런 점에서도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가볼 만한 곳이라고 했다.

“대략 1,000명~1,500여 명의 국내 출판인들이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참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그는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현지를 들러, 견문을 넓히고 문화적 ‘깨침’의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권했다. **이문**

취재\_박경만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